

알렉산더 피터스의 한글 개역 구약 개정 작업 -“구약 개정에 대한 노트”(1940년)를 중심으로-

이환진*

1. 들어가는 말

알렉산더 피터스(Alexander A. Pieters, 彼得)는 한글성서 번역에 지대한 공헌을 남겼다. 1898년에 구약의 단행본으로는 처음으로 펴낸 『시편촬요』는 한글성서 번역사에서 길이 빛나는 피터스의 업적이다.¹⁾ 김중은 교수는 바로 이 알렉산더 피터스에 대하여 여러 편의 글을 남겼다. 지난 2007년 12월 27일에는 광화문에 있는 종교교회에서 한국구약학회의 2007년 마지막 학술모임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김중은 교수는 한글성서 국역사에서 피터스의 위치를 높이는 귀중한 논문을 발표하였다.²⁾ 김중은 교수는 이 논문에서 피터스가 한글 성서 번역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면서, 특별히 *The Korea Mission Field* 1940년 5월호의 78-80 쪽에 실린 피터스의 글, “구약 개정에 대한 노트”(Notes on Old Testament Revision)를 발굴하여 우리에게 소개하였다.

김중은 교수의 글은 한글성서 번역의 역사에서 피터스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또한 그의 이러한 위치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다. 필자는 이 글에서 성경 번역학의 입장에서 피터스의 작업을 다루고자 한다. 이와 함께 피터스가 주도적으로 작업한 한글 『성경개역』의 어떤 점이 장점이며 단점인지를 다루고자 한다.

우선 피터스가 영어로 쓴 “구약 개정에 대한 노트”의 전문을 우리말로 번역하여 실는다. 그리고 그 내용을 다시 정리하여 번역위원은 누구였으며, 그 번역 철

*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 구약학.

1) 김중은 교수가 『시편촬요』를 한글 성경 번역사의 관점에서 평가한 글로는 김중은, “구약성서국역사”, 『신학사상』 22 (1978), 24-66; 김중은, “최초의 구약국역 선구자 알렉산더 피터스(A. Pieters, 彼得)”, 『교회와 신학』 13 (1981), 29-42를 보라. 이 책의 번역의 평가에 대해서는 이환진, “알렉산더 피터스의 『시편촬요』 번역 평가”, 김이곤교수정년퇴임기념논문집 편집위원회 편, 『시편 우리 영혼의 해부학, 김이곤교수정년퇴임기념논문집』(서울: 한울출판사, 2006), 413-453을 참조하기 바란다.

2) 김중은, “구약 국역사에서 알렉산더 피터스(Alex. A. Pieters)의 위치와 의의”, 제76차 한국구약학회 학술대회, 2007년 12월 27일, 기독교대한감리회 종교교회.

학과 번역 방식이 무엇이었는지를 설명하고, 번역 내용을 논의하려고 한다. 그 내용을 좀 더 세밀하게 나눠보면 우리말의 수동태(受動態) 문제, 히브리어의 동사 3인칭 기원형, 히브리어의 현재 가정법 문제이다. 이 글에서는 『공동』과 『새번역』을 비교하면서 『성경개역』의 수동태 문제와 히브리어 동사 3인칭 기원형 그리고 현재 가정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1940년의 “구약 개정에 대한 노트”(Notes on Old Testament Revision)

(78쪽)³⁾ 첫 한글 구약의 개정작업은 약 25년 전에 시작하였다. 사실 이러한 개정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번역이 끝나던 때부터 시작되었다. 이유는 이렇다. 번역이 너무 서둘러 진행되었다는 점, 또 선교사 한 사람이 이 작업을 주도적으로 했다는 이유이다. 물론 이렇게 서둘러 번역을 할 수밖에 없었던 데는 까닭이 있다. 한국교회에 구약이 시급하게 필요했기 때문이다.

개역자회의(Board of Revisers)에 이 개정 작업을 맡겼지만 위원 중 그 누구도 이 일에만 전적으로 매달려서 일할 수 없었다. 각 위원에게 급한 일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휴가도 가야 했고 또 종종 몸이 아파서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번역자회의 위원들이 수시로 바뀌었고 그러다보니 성경 문체에 일관성이 없었고 작업이 지체되기도 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불분명한 구절을 해석하는 문제에 있어서 정말 다양한 견해가 있었다.

1930년에는 구약의 약 1/3이 남아 있었는데, 이 일은 W. B. 레이놀즈 박사와 이원모 씨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몫이었다. 결국 모든 책을 다 끝내기는 했지만 우리 세 사람은 이전에 다른 사람들이 작업한 책들을 일일이 검토해야 한다고, 또 우리가 한 작업과 통일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원모 씨와 나는 꼬박 1년 반 동안 이들 책을 자세히 검토하였다. 고치기도 하고 심지어 때로는 새로 번역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바뀐 것은 레이놀즈 박사에게 보내어 일일이 승인을 받았다. 결국 이 작업은 1938년 여름에 끝났다. 이렇게 간략하게 우리가 한 작업을 소개하면서 나는 자그마한, 정말 아주 자그마한 어려움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언급하고자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The Korea Mission Field* 편집자가 나에게

3) 이 괄호 속에 들어 있는 숫자는 *The Korea Mission Fields* 1940년 5월호의 쪽 수이다. 이 쪽의 아래 오른쪽에는 “*The Korea Mission Field* 1938년 5월호에 실려 있는 같은 필자의 ‘처음 번역들’이라는 글을 또한 보시라”(See also “First Translations” by the same author in the FIELD of May 1938)는 주(註)가 작은 글자로 실려 있다.

부탁한 이유이기 때문이다.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불분명한 히브리어 구절을 만족할만한 번역으로 내놓는 일이었다. 이 작업을 하면서 참고한 책은 다음과 같다. 독일어 성경은 루터역과 개정역(the Revised), 러시아어 성경은 정교회역(the Orthodox)과 개정역(Revised), 영어성경은 개역(Revised), 모펫역(Moffatt), 굿스피드역(Goodspeed), 긴스버그(Ginsburg)의 영어역, 그리고 중국어 역본 두 개와 일본어 역본 하나이다. 이들 성경뿐만 아니라, 정통주의와 자유주의 경향을 망라하여 여러 권의 주석을 참고하였고, 또 두 종류의 히브리어 사전도 참고하였다. 그런데 어떤 구절은 역본들의 번역이 다른데 심지어 역본마다 모두 다른 경우도 있고, 주석이나 사전의 경우는 견해가 다를 때가 더 많았다. 따라서 문제는 이렇게 번역과 견해가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이들을 조화시켜 번역에 반영하느냐 하는 점이었다. 이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는 물론 개정위원들 간에 생각이 서로 다른 경우이다. 타협하기 위해 여러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었고, 또 가끔씩 투표를 하여 다수의 의견을 따른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면 이렇다. 에스겔 39:14의 경우, “지면에 남아 있는 이들”(that remain upon the face of the earth)은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로 거의 한 시간을 토론하였다. 모든 주석과 역본을 읽어본 뒤에야 비로소 소수의 견해(the opinion of minority)를 채택하기도 하였다. 또 에스겔 20:39의 경우, “너희는 가라, 각자 자신의 우상들을 섬기라”(Go ye, serve ye every one his idols)는 구절은 몇 시간을 토론하였다. 개정위원 가운데 한 사람이, 주님이 이스라엘 집안에게 이러한 명을 내리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원문이 말하는 것을 달리 번역할 수 없다는 다수의 의견이 결정된 뒤에도 그 위원은 반대 의견을 계속 고집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는 네 쪽의 의견서를 써내기도 하였다.

물론 가장 어려운 일은 히브리어와 한국어 문법이 무척 다르다는 데에 있었다. 예를 들자면 이렇다. 한국어 동사 체계에서는 3인칭 명령형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79쪽) 원문에 있는 표현을 옮기기도 하였다. 물론 그 어떤 방식도 정확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말이다. 대부분의 경우 “하게 하오”라는 표현을 채용해야만 했다. 하지만 “하게 하다”(cause to do)라는 번역이 정확한 의미라고 말할 수는 없다. 창세기 첫 장에 나오는 명령의 경우, “빛이 있게 하라…”(Let there be light …)와 같은 표현은 “빛치잇스라” 등으로 옮겼다. 그런데 이 경우 영어나 한국어나 어색하고 부정확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이 한국어 표현을 영어로 옮겨보면 “빛, 너는 존재하라”(The light be thou present)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풀어서 옮기지 않는 한) 어떤 번역이 이 보다 더 나은 번역이라고 할 수 있을까? 다시 옮기 3장의 경우를 보기로 하자. 처음 아홉 절에 나오는 3인

칭 명령형은 “하엿섯드면”으로 또 “조핫슬거슨”을 이탤릭체로 표기하여 이 표현의 맺음말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 날이 망했다라면 좋았을 것을”(would that the day had perished)이라는 식으로 옮겼다.

또 어려운 점은 몇몇 한국어 동사는 수동태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수동태를 억지로 만들어 사용해야만 했다. 한국인들이 이러한 표현에 익숙해지기를 바라면서 말이다.

또한 현재 가정법을 어떻게 옮기느냐 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였다. 한국어는 가정법을 과거나 미래로만 사용하기 때문이다. “내가 배고프다 해도 나는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시 50:12)라는 구절을 가장 가깝게 옮기기 위해서 양보절 형태로 “내가가령주려도 네게닐아지 아닐 거슨”으로 옮겨보았다. 이 구절은 “예를 들어 비록 내가 배고파도 나는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For example, even though I am hungry, I will not tell thee, for, etc. …)과 비슷한 뜻이다. 다른 예로는 욥기 16:4를 들 수 있다. “만일 네 영혼이 내 영혼의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이라는 구절이다. 그 뜻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하여 “가령너희마음이 내마암자리에잇다하자”로 좀 이상한 표현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는데, “예를 들어, 너의 마음이 나의 마음의 위치에 있다고 말하자”라는 뜻이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가장 흔한 경우는 분사절이나 여타의 꾸밈절이 항상 꾸밈을 받는 낱말 앞에 온다는 사실이다. 이 경우 문장이 매우 길어지고 또 복잡해지는데 까닭은 독립절과 함께 나오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에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어순(語順)이 복잡하면 그 뜻이 불명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사야 14:19이 그 대표적인 경우인데, 이 구절은 무려 다섯 절로 서로 얽혀 있다. 예레미야 32:3-5에 나오는 “유다 왕 시드기야가 그를 가두었다. 무엇 때문에 너는 (이렇게) 예언하느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이 도시를 바빌론 왕의 손에 주리라 …”도 마찬가지의 예이다. 히브리어 본문으로 읽어보면 일곱 행이 한 문장에 걸쳐 있고 (영어로는 여덟 행) 마지막에 가서야 의문사가 붙어 있다.

느헤미야 11장에는 여러 세대 후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의 아들 …의 아들 …의 아들 …”이라는 원문의 표현은 “…의 아들 …의 손자 …의 증손 …의 현손 …등”으로 바꾸어야만 했다. 한국인의 족보에 나오는 가족 관계는 이렇게 표현하는 까닭이다.

또 다른 어려움은 한국어에 대응어가 없는 경우이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시편에 자주 나오는 “태곳적부터 영원까지”(from everlasting to everlasting)가 이 경우이다. 한국어는 이 낱말을 “영원”으로 밖에 표현할 수 없는데 “영원부터영원까지”로 옮기면 “영원으로부터 영원에 다다르기까지”(from forever till forever)

라는 뜻으로 그 의미가 무척 어색하다. 영어도 마찬가지이다. 원문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는 점은 말할 것도 없지만 말이다. 하지만 길게 풀어서 옮기지 않는다면 달리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인가? 한국어에는 “God”라는 말의 대응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채용하여 가장 가까운 뜻을 전달하고자 했다.⁴⁾ 물론 그 본디 뜻은 “존경하옵는 하늘”(honorable heaven)이다. 그런데 구약 전체를 살펴보면 “신들”(gods)이라는 말을 자주 만나게 된다. 이 말은 이방인들이 숭배하는 대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런데 이 경우 “신들”(gods)을 “존경하옵는 하늘들”(honorable heavens)로 옮기면 말이 안 된다. 망설이다가 결국 “신들”(spirits)로 옮기기로 하였다.⁵⁾ 물론 원어의 뜻을 정확하게 옮겼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말이다.

번역 작업을 하면서 생각지도 않게 수없이 부딪쳐야만 했던, “뜻하지 않은 장애물”을 이렇게 독자 여러분들에게 잠깐 언급하였다. 하지만 가장 큰 어려움은 다음과 같은 점이다. (80쪽) 예언서와 시편과 잠언에 나오는 장엄한 문체를 어떻게 한국어로 옮기느냐 하는 것이었다. 문자적으로 옮기되 말이 되도록 또 될 수 있는 한 시적(詩的)으로 옮겨야 했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부터 히브리어 성경을 읽어온 사람으로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장엄한 문체로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 시를 정말 있는 그대로 옮기기로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이 점에 있어서 한 언어의 시를 제대로 다른 언어로 옮기는 일이란 사실 불가능하다. 다른 언어로 말하고 다른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표현하는 그런 방식으로 어떻게 시(詩)의 아름다움과 그 힘을 전달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성경을 번역하는 경우는 더욱 그렇다. 세속 문학작품을 번역할 때는 시의 경우로 말하자면 자유롭게 바꾸어 옮길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성경을 번역하는 일은 마치 아름다운 풍경을 사진에 담아 터너(Turner)의 그림처럼 그렇게 보이도록 하는 일이라고나 할까!

하지만 교우들이 훌륭한 한국어로 구약을 읽을 수 있도록 개역위원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성실하게 작업에 임했다. 물론 두 언어를 절충하는 일이 태생적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최대한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하였다. 사실 불완

4) “하나님”이라는 말은 로스 목사가 『예수성교전서』를 번역할 때 “위에서 다스리시는 분으로 땅에서 높으신 분”(the Ruler above and the supreme on earth)이라는 뜻으로 채택하여 사용한 말이다. 김정현, 『羅 約翰 (J. Ross) 한국의 첫 선교사』(대구: 계명대학교출판부, 1982), 209-210. 본디 이 글은 John Ross, “Corean New Testament”, *Chinese Recorder and Missionary Journal* 14 (Nov., Dec., 1883), 491-497에 실려 있으며, 이 글은 김정현 박사의 앞의 책, 206-213쪽에 그대로 실려 있다. 이 글에서는 김정현 박사가 쓴 책의 쪽수로 인용한다.

5) “하나님”이라는 용어는 피터스가 독창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지만, 우상을 가리킬 때 “하나님들” 대신 “신들”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사용한 것은 피터스 번역 팀의 독창적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전한 번역이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책을 통하여 한국교회에 복을 내리시리라 확신한다.

3. 『성경개역』 구약의 번역위원, 번역 철학, 번역 방식

3.1. 번역위원

번역위원은 레이놀즈, 이원모, 피터스 세 사람이다.⁶⁾ 피터스의 글에는 이들을 “개정위원”(“Revisers”)이라고 부른다. 1926년부터 세 사람이 한 팀이 되어 같이 작업하였다고 말한다. 처음 개정 작업은 약 1915년경에 “개역위원회”가 조직되어 시작되었다. 하지만 위원들의 잦은 여행과 휴가와 병고 때문에 일이 별로 진척되지 않았다. 그래도 구약의 약 2/3정도가 완성되었고 나머지 약 1/3이 남아 있었는데, 바로 이즈음에 위의 세 사람이 마무리 작업을 맡았다.⁷⁾

그런데 여기서 언급해야 할 것은 이 세 사람의 작업이 단순한 개정 작업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이들이 어떻게 작업했는가를 구체적으로 말하는 예를 보면 이 점은 분명하다. 그들이 맡은 구약 1/3의 개정 작업을 모두 끝낸 뒤, 앞서 다른 이들이 작업한 내용과 문체나 내용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일이 다시 검토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⁸⁾

또 하나 언급해야 할 점은 위의 세 사람이 이 작업을 수행한 이유를 밝힌 것이다. 특히 『구약』이 한 사람의 선교사가 주도적으로 수행했다는 점에서 개정 작업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하고 있다. 물론 정황을 미루어 보면 레이놀즈가 바로 그 선교사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레이놀즈 역시 개역 작업의 위원으로 같이 참여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한 사실이다. 아무튼 이들의 작업은 아무래도 히브리어 원문을 잘 읽을 수 있었던 피터스의 주도적인 작업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 한다.⁹⁾

3.2. 번역 철학

번역 철학은 한 마디로 문자적 번역이다. 곧 원문에 있는 것을 문자적으로

6) A. A. Pieters, “Notes on Old Testament Revision”, *The Korea Mission Field* 36:5 (May, 1940), 78.

7) Pieters, “Notes on Old Testament Revision”, 78.

8) Ibid.

9) E. M. Cable, “The Present Version”, *The Korea Mission Field* 34:5 (May 1938), 99.

옮기고자 노력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보인다. “길게 풀이하지”(paraphrase) 않으려고 노력하였다고 피터스는 말한다.¹⁰⁾

특히 이 점과 관련하여 피터스는 예언서와 잠언과 시편의 문체를 될 수 있는 대로 문자적(文字的)으로 말이 되도록 또 시적(詩的)으로 옮기려고 노력했다고 말한다.¹¹⁾ 피터스는 히브리 시 문학의 문체를 “장엄한”(sublime) 문체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시(詩) 문학을 옮기는 일은 풍경을 사진에 담아 그대로 따라 그리듯 그렇게 성경을 번역해야 한다고 말한다. 특별히 이 대목에는 피터스의 번역 철학이 스며 있는 말이 나오는데, 곧 시(詩)를 번역하는 일은 세속문학과는 달라야 한다는 점이다. 일반 시는 자유롭게 바꾸어 옮길 수 있겠지만 성경은 “하느님의 말씀”(“the Word of God”)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유롭게 바꾸어 옮겨서는 안된다는 것이 피터스의 생각이다.¹²⁾

3.3. 번역 방식

번역 방식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번역가의 신학적인 문제로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는 다수의 의견을 따라 번역하였다.¹³⁾ 또 하나 본문이 불분명하여 논쟁이 붙은 경우는 앞서 언급한 대로 여러 역본과 주석을 참조하여 의견을 조정하였다.¹⁴⁾

피터스는 개역의 구약 개정 작업을 하면서 영어 성경에서 번역하지 않고 히브리어 성경에서 번역하였다고 말하고 있다.¹⁵⁾ 하지만 그가 사용한 히브리어 성경이 어떤 판본인지 잘 알 수 없다. 그런데 그가 언급한 참고 역본 가운데에는 긴스버그(Ginsburg)의 영어번역(“Ginsburg’s English”)이 들어 있는데, 사실 이 역본이 긴스버그가 번역한 어떤 영어성경을 가리키는지 잘 알 수 없다. 사실 같은 이름의 크리스찬 긴스버그(C. D. Ginsburg)라는 성서학자가 편집한 히브리어 성경이 있기 때문에¹⁶⁾ 피터스가 대본으로 사용한 히브리어 성경이 긴스버그의 히브리어 비평본이 아닐까 짐작해보지만 이것도 확실치 않다.

아무튼 이렇게 어려운 본문을 어떻게 옮길까 결정할 때에는 여러 역본을 참조

10) Pieters, “Notes on Old Testament Revision”, 79.

11) Ibid., 80.

12) Ibid., 79.

13) Ibid., 78.

14) Ibid.

15) Ibid.

16) B. J. Roberts, “I. The Old Testament: Manuscripts, Text and Versions”, G. W. Lampe, ed., *The Cambridge History of The Bible. Vol. 2: The West From The Fathers To The Reformation* (Cambridge: Th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9), 12.

하여 옮겼다고 했다.¹⁷⁾ 참조한 역본은 독일어, 러시아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의 다섯 언어로 된 성경 11개의 역본을 참조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참조한 역본을 피터스는 구체적으로 “독일어 루터역과 개정역(the Revised), 러시아어 정교회역(the Orthodox)과 개정역(Revised), 영어 개역(Revised)과 모펫역(Moffatt)과 굿스피드역(Goodspeed)과 긴스버그(Ginsburg)의 영어역, 그리고 중국어 역본 두 개와 일본어 역본 하나”라고 말한다.¹⁸⁾

비록 번역 대본이 어떤 히브리어 비평본이었는지는 분명치 않다. 하지만 참조한 성경 번역본을 일일이 언급한 것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번역 대본이 적어도 영어 성경과 중국어 성경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흔히들 『성경개역』의 번역 대본으로 선교사 번역자들은 영어 성경을 사용하고 한국인 번역자들은 중국어 성경을 사용하여 작업을 했다는 통설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성경 역본 이외에도 정통주의와 자유주의 전통을 모두 망라한 성경 주석을 다수 참조하였으며, 히브리어 사전도 두 종류나 참조하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언급을 통하여 또한 『성경개역』의 번역 작업 역시 여타의 성경 번역 작업과 마찬가지로 학문적으로 다양한 전통을 진지하게 참고하여 치밀하게 작업한 성경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4. 번역 내용

피터스가 번역하면서 부딪친 수많은 문제 가운데에서도 우리말의 경우는 수동태가, 그리고 히브리어의 경우 3인칭 기원형과 현재 가정법이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꾸미는 절이 긴 경우 어떻게 어색하지 않은 한국어 문장으로 바꾸느냐 하는 것도 큰 고민거리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하나씩 짚어보기로 하자.

4.1. 우리말의 수동태(受動態) 문제

우리말이 수동태를 별로 사용하지 않는 언어이기 때문에 오는 문제이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한국인의 귀에 익숙해지기를 바라면서 수동태를 만들어 사용하기도 하였다.¹⁹⁾ 이 경우 피터스는 구체적인 예를 들지 않았다. 하지만 이사가

17) Pieters, “Notes on Old Testament Revision”, 78.

18) Ibid., 79.

19) Ibid.

에 나오는 유명한 고난 받는 종의 노래(53장)를 예로 들어 이 점을 잠시 살펴보자(53:3). 인용문의 행갈이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나눈 것이다.

그는 멸시를 밧아서 사람의게 슬혀버린바 되었스며
간고를 만히 격것스며 질고를 아는자라
마치 사람들의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아님을 밧는자 갓하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녀이지아니하였도다

이 가운데에서도 “슬혀버린바 되었스며”와 “마치 사람들의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아님을 밧는자”라는 표현은 우리말로 어색한 수동태 표현이다. 『개역한글판』(1961년)은 앞의 표현을 “싫어 버린바 되었으며”로, 뒤의 표현은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로 표기하고 있다.

그런데 앞의 표현을 『공동』(1977년)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퇴박을 맞았다”로 읽었고, 『새번역』(2001년)은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로 읽었다. 수동태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들 번역에서는 어색하지 않은 수동태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성경개역』의 경우 “슬혀버린바 되었스며”(“싫어 버린바 되었으며”)라는 표현은 억지로 만든 수동태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어색한 수동태로 번역한 것은 피터스가 일찍이 『찬성시』(1895년)에 번역하여 실은 이사야 53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²⁰⁾ 이 찬송가의 제70장에 실린 이사야 53:4에 “더가업쉬넉임되고슬혀브림되었스니”라고 번역되어 있다. 이 구절은 “저가 업수이 여김되고 싫어버림 되었으니”로 표기법을 고쳐 읽어볼 수 있는데, 찬송가에 실려 있는 가사이기 때문에 운율이 잘 맞기는 하지만 어색한 수동태로 번역되어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또한 “마치 사람들의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아님을 밧는자 갓하셔”(“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특별히 “보지아님을 밧는자 갓하셔”라는 표현이 그렇다. 『공동』은 이 부분을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우고 피해 갈 만큼 멸시만 당하였으므로”라고 풀어서 읽었다. 『새번역』 역시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로 풀어서 읽었다.²¹⁾

20) 『찬성시』(서울: 삼문출판사, 1905), 34. 이 찬송가에는 이사야 53장이 “제칠십 이사야오십삼장 예수 오시기 전 칠백 오십 년에 선지 이사야가 예수를 위하여 미리 한 말씀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으며, 이사야 53장 전체를 22절로 나누어 옮겼다. 찬송가에 실려 있는 가사이기 때문에 운율을 맞추어 번역한 것을 알 수 있다.

21) 이사야의 고난 받는 종의 노래 가운데에서 이 구절(53:3)은 특별히 논란이 되는 구절이다. 『공동』과 『새번역』이 모두 이 구절을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고 그를 피한다”는 뜻으로 읽었는데, 이들 번역은 NJPS의 난외주(c-c)가 가리키듯이 레위기(13:45)와 함께 읽을 때 문제가 없지 않

그런데 『성경개역』의 난외주에는 “그가 우리압헤서 얼굴을 가리운 사람 갖하셔”라고도 읽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스어 칠십인역이 이미 이렇게 읽은 전통이 있으며, 영어성경 NJPS도²²⁾ 이러한 읽기를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개역』의 난외주에 제시한 번역이 오히려 더 훌륭한 번역으로 보인다.²³⁾ 그런데도 구태여 번역 본문에는 어색한 수동태 문장을 그대로 두고 난외주에 자연스러운 한국어 문장을 제시한 것은 바로 피터스의 번역 철학이 반영되어 있는 부분으로 보인다. 곧 본디 히브리어 본문의 수동태 문장이 어색하기는 하지만 한국인 독자들이 이 수동태 문장에 익숙해지기를 바라면서 될 수 있는 대로 번역문에서 문자적인 번역을 하였다고 언급한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²⁴⁾

4.2. 히브리어 동사의 3인칭 기원형

우리말에는 없고 히브리어 동사에 있는 3인칭 기원형을 어떻게 옮길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하게 하오”로 번역하였다고 말하면서도, 이 표현이 한국어로는 어색하기도 할 뿐더러 사실 부정확한 번역이라고 말하는 점이 돋보이는 부분이다. “하게 하오”라는 말은 “...로 하여금 ...을 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물이 어떤 동작을 하게 하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러한 어법은 사실 우리말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어법으로, 피터스는 이 표현이 억지로 만들어 사용한 예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이 표현도 만들어 사용한 어법이라고 말해야 할 것 같다.

피터스는 그 예로 창세기 1장과 욥기 3장을 들고 있다. 우선 창세기 1장의 경우를 살펴보자. 『성경개역』은 1:3을 이렇게 읽는다.

하나님이 갈아샤대 빗치 잇스라 하시매 빗치 잇섯고

다. NJPS의 난외주에는 “곧 문둥병자로서; 레위기 13:45 이하를 참조하라”(“I.e., as a leper; cf. Lev. 13.45ff”)라고 되어 있다. 레위기 본문은 이렇다. “한센씨 병에 감염된 사람은 그의 옷을 찢어야 한다. 그의 머리는 밀어야 한다. 그의 뺨입술은 가려야 한다. 그리고는 외쳐야 한다. ‘부정하오! 부정하오!’라고-.”(13:45) 이렇게 레위기 본문에 비추어 이사야 53:3의 이 구절을 읽어보면 『성경개역』의 난외주에 제시되어 있는 “그가우리압헤서얼굴을가리운사람갖하셔”(“그가 우리 앞에서 얼굴을 가리운 사람 갖하셔”)라는 번역이 마소라 본문의 뜻을 더 정확하게 읽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비해 같은 『공동』 그리고 이 본문에서 『공동』을 따른 것으로 보이는 『새번역』은 또 다른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나, 오히려 이 전통을 난외주로 처리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성경개역』은 고난 받는 종이 자신의 얼굴을 가렸다고 읽은 반면, 『공동』과 『새번역』은 사람들이 얼굴을 가렸다고 읽는 까닭이다.

22) “As one who hid his face from us, He was despised, we held him of no account.” (Is 53:3b)

23) 『공동』이나 『새번역』은 이 점과 관련하여 난외주를 달지 않았다.

24) Pieters, “Notes on Old Testament Revision”, 79.

이 구절을 『개역한글판』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라고 표기하였다.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어 본문으로 “예히 오르”(אֵשׁרֵא)라고 하여, “빛으로 하여금 생기게 하라”나 “빛아, 생겨나라”로도 옮길 수 있는 표현이다. 하지만 피터스가 어려움을 토로했듯이 우리말에는 3인칭 명령형이 없기 때문에, 옮기는 데 어려움이 많은 히브리어 어법이다.²⁵⁾ 그래서 “빛치 잇스라”로 옮겨놓아도 만족스럽지 않고 또 불명확한 번역이라고 피터스는 영어로 역지로 옮겨보자면 “The light be thou present”라고 어색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²⁶⁾ 물론 “빛이 있으라”는 번역은 『성경개역』의 고유한 표현이라기보다는 『구역』에서 이미 사용하던 것을 그대로 따온 것이다. 다른 대안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그냥 『구역』을 따라 옮긴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후대에 나온 『공동』과 『새번역』은 “빛이 생겨라”로 옮겨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²⁷⁾

또 히브리어 동사 3인칭 기원형의 다른 예로 피터스는 욥기 3장을 들고 있다.²⁸⁾ 『성경개역』은 “...하엿섯드면”과 “...섯드면”으로 이어지는 3인칭 명령형을 옮겼고 이 기원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야 “도하슬것을”(3:9)이라는 표현을 작은 글자로 표기하였다. 곧 이 말을 첨가하여 3인칭 명령형이 지니고 있는 그 뜻을 좀 더 분명하게 하고자 한 것이다. 『성경개역』의 욥기 본문을 읽어보기로 하자(3:3-9).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줄바꾸기를 한 것이다.

나의 난 날이 멸망하엿섯드면
 남아를 배엿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엿섯드면
 그날이 캄캄하엿섯드면
 하나님이 우에서 도라보지 마섯드면

25) Ibid., 78-79.

26) 『개역』(1938)과 피터스의 글 모두 “빛치 잇으라 (하시매 빛치 잇었고)”(창 1:3)로 표기되어 있다.

27) “빛이 생겨라”라는 해석은 또한 히브리어 동사 “하야”(הָיָה)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흔히 이 동사의 일차적인 뜻이 “이다”나 “있다”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이 동사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실 19세기 나온 히브리어 사전이나 최근에 나온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아도 이 동사의 일차적인 뜻을 “...이 생기다, 일어나다”로 표기하고 있다. 따라서 “빛이 생겨라”는 번역은 “하야”(הָיָה) 동사의 이해와도 관련이 되어 있는 번역이라고 보아야 한다. 특별히 “하야” 동사가 가장 많이 쓰이는 “바예히”(בָּאֵי)나 “바테히”(בָּתֵּי) 등의 표현은 “...한 일이 생기다, 벌어지다”라는 뜻으로 대부분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사전들을 보라. E. Robinson, *A Hebrew and English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Including the Biblical Chaldee*. 8th ed. (Boston: Crocker and Brewster, 1857), הָיָה 항목 1, 2와 Note; L. Koehler and W. Baumgartner, *Th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M. E. J. Richardson, ed., trans. (Leiden: Brill, 2001), הָיָה 항목 1, 2.

28) Pieters, “Notes on Old Testament Revision”, 78-79.

빛도 그 날을 빗최지 말았섯드면
 유암과 사망의 그늘이 그 날을 자기것이라 주장하였섯드면
 구름이 그 우에 덮혔섯드면
 낮을 캄캄케 하는것이 그 날을 두렵게 하였섯드면
 그 밤이 심한어두움에 잡혔섯드면
 해의 날수 가온대 기쁨이 되지마랏섯드면
 달의 수에 들지 마랏섯드면
 그 밤이 적막하였섯드면
 그가온대서 즐거운 소래가니러나지 마랏섯드면
 날을 저주하는자
 곧 큰 악어를 격동식하기에 닉숙한자가 그 밤을 저주하였섯드면
 그 밤에 새벽 별들이 어두엇섯드면
 그 밤이 광명을 바랄지라도 엇지못하며
 동틈을 보지못하였섯드면 도향슬것을

긴 문장이지만 이렇게 옮겨보면 앞서 얘기한대로 “…하였섯드면” 그리고 이와 비슷한 표현인 “…섯드면”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1961년에 나온 『개역한글판』은 이 기원형 어미를 “…하였엇더라면”이나 “…았엇더라면”으로 바꾸어 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좀 길기는 하지만 어떻게 어감이 달라졌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인용해보자.

나의 난 날이 멸망하였엇더라면
 남아를 배엿다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엇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엇더라면
 하나님께서 위에서 돌아보지 마셨더라면
 빛도 그 날을 비취지 말았엇더라면
 유암과 사망의 그늘이 그 날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였엇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엇더라면
 낮을 캄캄하게 하는 것이 그 날을 두렵게 하였엇더라면
 그 밤이 심한 어두움에 잡혔엇더라면
 해의 날수 가운데 기쁨이 되지 말았엇더라면
 달의 수에 들지 말았엇더라면
 그 밤이 적막하였엇더라면
 그 가운데서 즐거운 소리가 일어나지 말았엇더라면
 날을 저주 하는 자
 곧 큰 악어를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가 그 밤을 저주하였엇더라면
 그 밤에 새벽 별들이 어두웠엇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바랄찌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었다더라면 좋았을 것을

1938년에 나온 『성경개역』과 마찬가지로 『개역한글판』은 마지막에 “좋았을 것을”을 작은 글자로 처리하였다. 1961년에 나온 『개역한글판』은 1933년에 나온 한글맞춤법 통일안에 맞추어 표기법을 바꾼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종결어미를 바꾸어 번역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작은 글자로 처리한 부분을 피터스는 그의 글에서 “조할을거슨”으로 번역하였다고 했는데, 『성경개역』은 “도할을것을”로 표기하고 있으며 『개역한글판』은 이를 맞춤법에 맞추어 “좋았을 것을”로 표기하고 있다. 피터스의 원고 번역이 『성경개역』 본문에서 약간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무튼 『성경개역』 본문 속에 들어 있는 작은 글자는 원문의 뜻을 더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본문에 집어넣은 것이라고 『성경개역』의 서문은 밝히고 있는데,²⁹⁾ 읍기의 경우는 아홉 절이나 계속해서 이어지는 기원형 어미를 “좋았을 것을”이라는 단 한 마디로 마무리한 흔치 않은 예이다. 그래서 마지막 9절의 “...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이라는 표현은 3인칭 기원형을 피터스가 어떻게 옮겼는지 제대로 알 수 있는 표현이다. 따라서 이렇게 바꾸어 옮겨놓을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난 날이 멸망하였었다더라면 좋았을 것을
 남아를 배었다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었다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 날이 캄캄하였었다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마셨더라면 좋았을 것을
 빛도 그 날을 비취지 말았었다더라면 좋았을 것을 ...

이러한 번역을 목표로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하였었다면”이라는 표현을 보면 “...하였더라면”이라고 옮겨도 충분히 그 의미가 전달이 되는데도 “...었...”이라는 요소를 집어넣어 우리말에는 없는 번역투의 문장을 내놓았다는 점을 지적해야 할 것 같다. 곧 우리말에는 없는 과거완료형을 만들어 옮겨 놓은 것이다. 실제로 위의 번역문을 보면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마셨더라면”이라는 부분에서 통일성을 기하려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마셨었다면”으로 “었”을 집어넣어야 마땅하지만 그렇게

29) 『성경개역』(1938)의 구약 목록 범례에는 “원문에 가입한 잔 글자는 원문에 뜻을 더 밝힘임”이라고 명기하고 있다. 이 작은 글자에 대하여 자세하게 연구한 글은 민영진, 『국역성서연구』(서울: 성광문화사, 1984), 68-80(“改譯聖書 本文 안의 작은 글자”)를 보라.

하지 않았다. 이 점은 우리말이 구태여 “...였...”이라는 요소를 집어넣지 않아도 그 뜻을 전달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반증하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 역시 피터스가 언급한 대로 한국어에는 없는 요소를 만들어 번역투의 문장을 만든 예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잘 알고 2001년에 나온 『새번역』은 “-였-”을 빼고 “...하였더라면”으로 어미를 모두 통일하여 옮겼다. 『새번역』을 읽어보자(3:3-4).

내가 태어나던 날이 차라리 사라져 버렸더라면,
 “남자 아이를 배었다”고 좋아하던 그 밤도 망해 버렸더라면,
 그 날이 어둠에 덮여서,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그 날을 기억하지 못하셨더라면,
 아예 그 날이 밝지도 않았더라면 ...

“...였더라면”이나 “왔더라면”이라는 어미를 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행갈이를 바꾸어서 인용해 보았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공동』은 히브리어 3인칭 기원형을 우리말로 옮길 때 아예 다른 방식으로 옮긴다. 곧 명령으로 바꾸어 옮긴 것이다. 인용해보기로 하자(3:3-4).

내가 태어난 날이여, 차라리 사라져 버려라.
 사내아이를 배었다고 하던 그 밤도 사라져 버려라.
 그 날이여, 어둠에 뒤덮여
 위에서 하느님이 찾지도 않고
 아예 동트지도 말아라. ...

이렇게 『공동』은 우리말에는 없는 히브리어 3인칭 기원형을 2인칭 명령형으로 바꾸어 자연스러운 우리말이 되도록 애쓴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점은 창세기 1장의 “빛이 생겨라”(3절)나 “하늘 창공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 밤과 낮을 갈라놓고 절기와 나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어라!”(14절)라고 옮긴 것과 같은 예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말 어법에는 없는 히브리어 3인칭 기원형은 우리말로 옮기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우리말 성경은 어떻게 해결하고자 했는지 『성경개역』부터 『개역한글판』을 거쳐 『새번역』까지 그 변천 단계를 표기해 보면 이렇다.

“하엿섯드면”(개역)→“하엿엇더라면”(개역한글판)→“하였더라면”(새번역)

앞서 언급했듯이, 이와 함께 『공동』은 “버려라”나 “말아라”라는 2인칭 명령을 사용하여 우리말에는 없는 히브리어 3인칭 기원형을 나타냈다. 이렇게 우리말 성경은 우리말에 없는 이 문법적 요소를 두 가지 전통으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이러한 전통은 앞으로 성서 번역이 계속되는 동안 연구하고 또 참고해야 할 중요한 전통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해볼 때 비록 완벽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애쓴 흔적을 우리는 피터스의 글과 『성경개역』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

4.3. 히브리어의 현재 가정법

히브리어의 현재 가정법의 문제이다. 한국어는 과거와 미래 시제로만 가정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어법이라고 피터스는 말한다.³⁰⁾ 히브리어 가정법은 일반적으로 “임”(אם)이라는 말과 “루”(לו)라는 말로 표현한다. “임”은 주로 현재와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나타내고, “루”는 주로 과거에 일어나지 않았으며 현재나 미래에도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주로 사용되는 용어이다.³¹⁾ 피터스는 그 예로 시편 50편과 욥기 16장을 들었다. 먼저 시편 50:12을 읽어보자.

내가 가령 주려도 네게 날아지아닐 거슨³²⁾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이 구절에서 가정법이 들어 있는 상반절을 『개역한글판』은 “내가 가령 주려도 네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로 당시 맞춤법을 따라 고쳐 읽었다. 그런데 “내가 가령 주려도”라는 표현이 바로 문제가 되는 표현인데, 히브리어 본문에는 “임 에르아브”(אם ארעב)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점은 “굶주리다”나 “배고프다”는 뜻의 동사가 익톨(Yiqtol) 형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익톨(Yiqtol) 형은 지금 또는 앞으로도 계속 그러한 상태이거나 동작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그렇다면 과거나 미래에만 가정법을 사용하는 우리말의 경우 말을 만들어 그 뜻을 설명할 수밖에 없

30) Pieters, “Notes on Old Testament Revision”, 79.

31) A. E. Cowley, *Gesenius' Hebrew Grammar*. 2d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10), §159 l. 이외에도 “헨”(הן)이나 “키”(כי)가 가정법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앞의 책 §159 v, aa-bb를 보라.

32) 『성경개역』에는 “내가 가령 주려도 네게 날아지 아닐 것은”으로 표기되어 있다. 피터스의 글에는 “주려도”가 “주려도”로, “아닐것은”이 “아닐거슨”으로 표기되어 있다.

다. 이러한 우리말의 어법 때문에 피터스는 “가령”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이 동사의 기능을 분명하게 표현하고자 “내가 가령 주려도”라고 옮겼다. 아니면 “만일”이라는 뜻으로 옮길 수 있는 “임”(אם)이라는 불변화사를 “예를 들어”라는 뜻으로 “가령”으로 옮겼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피터스는 이 표현의 뜻은 “예를 들어, 내가 배고프다 하여도, 나는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For example, even though I am hungry, I will not tell thee, for, ….”)이라고 설명한다.³³⁾ 그의 글에서 이렇게 길게 설명을 붙이면서도 단순하게 “내가 가령 주려도”로 옮기면서, 개역의 번역 원칙이 길게 풀어서 번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³⁴⁾

그런데 옮기의 경우는 이러한 예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준다. 피터스는 옮기 16장을 그 예로 들었다. 16:4를 피터스는 “가령너희마음이 내마암자리에 잇다하자”로 그의 글에서 표기하고 있는데,³⁵⁾ 『성경개역』 본문은 약간 다른 표기법으로 인쇄되어 있다. 이 구절을 인용해보기로 하자.

나도 너희처럼 말할수 잇나니
가령 너희 마암이 내 마암자리에 잇다하자³⁶⁾
나도 말을 지어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수 잇나니라

이 인용문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자가 임의로 줄바꾸기를 한 것이다. 여기서 “가령 너희 마암이 내 마암자리에 잇다하자”라는 부분이 피터스가 고민한 부분으로,³⁷⁾ “For example, let us say that your mind is in the position of my mind”라고 영어로 설명하고 있다.³⁸⁾ 이 부분에서 피터스가 현재 가정법이라고 부르고 옮긴 부분이 “가령 … 하자”(“For example, let us say that ….”)라는 부분이다. 히브리어 불변화사 “루”(ל)를 옮긴 말이다.

“루”라는 히브리어 불변화사가 익톨(Yiqtol) 형과 함께 쓰이는 경우 “…이라

33) Pieters, “Notes on Old Testament Revision”, 79.

34) 『공동』은 “내가 배고픈들 너희에게 달라고 하겠느냐?”로, 『새번역』은 “내가 배고프다고 한들, 너희에게 달라고 하겠느냐?”로 비슷하게 옮겼다. 곧 “…한들”이라는 어미를 사용하여 히브리어 “임”(אם)으로 표현되는 가정법을 처리하였다.

35) Pieters, “Notes on Old Testament Revision”, 79.

36) 이 구절에서 두 번 나오는 “마암”이라는 표현이 피터스의 글에서 앞은 “마음”으로, 뒤는 “마암”으로 표기되어 있다.

37) 여기서 “네페쉬”(נפש)라는 말을 “마음”으로 옮긴 것은 무척 과격적인 번역이라고 생각한다. 피터스는 『시편촬요』(1895년)부터 시작하여 『성경개역』 시편에 자주 나오는 이 용어를 대부분 “영혼”으로 옮겼기 때문이다. 이환진, “알렉산더 피터스의 『시편촬요』 번역 평가”, 참조를 바람.

38) Pieters, “Notes on Old Testament Revision”, 79.

면 얼마나 좋으랴!”(창 17:18)로 옮길 수 있으며, 카탈(Qatal) 형과 함께 쓰이는 경우 “…한다면 좋으련만!”(민 14:20)이나 “만일 …하기라도 한다면!”(삿 13:23)으로 옮길 수 있다.³⁹⁾ 또한 명령형과 함께 쓰여 “제발 내 말 좀 들어보시죠”(창 23:5)라는 뜻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런데 분사(分詞)와 함께 쓰이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는 문맥에 따라 다양하게 옮길 수 있다. 그런데 위의 욱기 본문처럼 “있다”라고 흔히 해석하는 “예쉬”(עָשָׂה)라는 명사와 함께 쓰일 경우는 좀 복잡하다.⁴⁰⁾

아무튼 “루 예쉬”라는 표현은 위의 욱기 16:4와 함께 민수기 22:29에만 나오는 표현이다. 그런데 민수기 22:29을 『성경개역』은 “발남이 라귀에게 말하대 내가 나를 거역하는 연고니 내 손에 칼이 잇섯더면 곳 너를 죽였스리라”로 읽어, “내 손에 칼이 잇었더면”으로 단순하게 “… 있었다면”으로 옮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불변화사 “루”가 익톨(Yiqtol) 형과 함께 쓰인 욱기 6:2에서 『성경개역』은 “나의 분한을 달아 보며 나의 모든 재앙을 저울에 들수 잇스면 바다모래보다도 무거울것이라”로 읽어 마찬가지로 “들수 잇스면”으로, 역시 “… 있으면”으로 단순하게 옮겼다.

그런데 사무엘하 19:7의 경우 『성경개역』은 “이제 곳 니러나 나가서 왕의 신복들의 마암을 위로하야 말삼하옵쇼셔 내가 여호와를 가라쳐 맹서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아니하시면 오늘밤에 한사람도 왕과 함피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엇슬째에브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로 읽고 있다.

물론 이렇게 같은 표현을 “가령 … 하자”(욥 16:4)와 “만일 …하면”(삼하 19:7)과 “…있었다면”(민 22:29)과 “… 있다면”(욥 6:2)으로 다양하게 옮긴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성경 번역을 하다 보면 모든 경우를 통일시키기 어렵다. 그래서 같은 히브리어가 같은 뜻을 나타내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많은 본문을 똑같이 옮기기가 쉽지 않다. 또 하나는 물론 가정법이 우리말에는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구별하여 옮기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다만 우리가 『성경개역』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확은 이렇다. 곧 히브리어 불변화사 “루”(לֵּוּ)와 관련된 가정법은 문맥에 따라서 “가령 … 하자”나 “만일 … 하면” 또는 “… 있었다면”과 “… 있다면”으로 옮길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공동』에서는 다른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위에서 예로 든 본문을 『공동』으로 읽어보자.

39) Koehler and Baumgartner, *Th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לֵּוּ 항목 1, 3.

40) 이 용어를 명사라고 부르는 이유는, 물론 성경에서 대부분이 이 낱말이 “있다”는 뜻으로 사용되기는 하지만, 본디 이 말이 “있는 것”이나 “있음”이란 속뜻을 지니고 있는 “재산”이라는 뜻으로 잠언 8:21과 벤시라 42:3에 등장하는 까닭이다. Koehler and Baumgartner, *Th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לֵּוּ 항목 4 참조.

“자네들이 내 처지에 있다면
나도 분명히 자네들과 같은 말을 했을 것일세.”(욥 16:4)

“임금님께서 나가 주지 않으신다면,
두고 보십시오,
오늘 밤 임금님 곁에 머물러 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삼하 19:7)

“네가 이렇게 나를 놀리지 않았느냐?
내 손에 칼만 있었으면 당장 쳐죽였을 것이다.”(민 22:29)

“아, 이 원통한 심정을 저울질하고
재앙도 함께 달아 보았으면,
바닷가 모래보다도 무거우리니
나의 말이 거칠다면, 그 때문이리라”(욥 6:2-3)

『공동』은 이 가정법을 “-다면”과 “있(았)으면”으로 읽었다. 과거와 현재로 나누어 표기하고 있으며, “만일”이나 “가령” 또는 “가령 …하자”라는 말을 집어넣지 않고 가정법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새번역』도 별반 다르지 않다. 『공동』과 마찬가지로 “가령”이나 “만일”이라는 표현도 집어넣지 않았으며, “-다면”과 “-있더라면”의 두 가지 형태로 가정법을 사용하고 있다.

아무튼 피터스가 작업한 『성경개역』은 이렇게 문자적 번역을 목표로 하였지만 원문의 뜻을 잘 살리려는 의도로 때로는 길게 읊긴 것도 눈에 띈다. “가령 …있다 하자”(욥 16:4)가 그러한 경우이다.

5. 피터스의 “구약 개정에 대한 노트”에 대한 평가

피터스가 레이놀즈와 이원모와 함께 작업한 『성경개역』의 구약은 번역 철학과 번역 방식을 살펴보면 개정이라기보다는 새로운 번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구역』과 달리 『성경개역』의 구약은 히브리어에서 우리말로 번역한 역본인 까닭이다. 실제로 개역자회의가 구성되어 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동안, 이 작업이 말이 개정 작업이지 사실은 새로운 번역이라고 주장하면서 1923년에 개역자회의를 탈퇴한 클라크(W. M. Clark)라는 선교사의 말을 통해서도⁴¹⁾ 우리

41) W. D. Reynolds, “Fifty Years of Bible Translation and Revision”, *The Korea Mission Field*,

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피터스가 그의 글에서 “개정”(Revision)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구역』과 같은 전통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면서 피터스의 글을 한 마디로 히브리어에서 우리말로 옮기려는 노력을 진지하게 보여준 본격적인 글이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수동태 문제와 히브리어 3인칭 기원형의 문제는 우리말 어법에서 잘 사용하지 않거나 없는 어법이기에, 비록 세 쪽밖에 되지 않는 글이지만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떻게 한국어 독자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진지하게 고민했던 것을 밝힌 글이다.

사실 히브리어에서 한국어로 옮기는 문제를 진지하게 연구한 글로는 『신학사상』 제7집에 실려 있는 문익환 목사의 “히브리어에서 한국어로”라는 글이 있고,⁴²⁾ 본격적인 연구서로는 민영진 박사의 『히브리어에서 우리말로』라는 책이 있다.⁴³⁾ 그런데 피터스의 이 글은 일본 강점기인 1940년에 나왔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으며,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이 이 문제로 씨름한 것을 보여주는 글이기 때문에 더욱 가치가 있다. 더구나 지금까지 잘 밝혀지지 않았던 개역 구약의 번역 내용을 잘 알려주는 글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이 문제는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님”이라는 용어의 의미, 한국어와 히브리어의 수동태, 가정법 문제 그리고 히브리어 동사의 3인칭 기원형의 번역 문제이다.

우선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채택하게 된 배경이다. 흔히 『성경개역』(1938년)과 『개역한글판』(1961년) 그리고 『개역개정판』(1998년)에서 줄기차게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어떤 뜻을 지니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피터스는 분명히 “하나님”은 “존귀하신 하늘”(honorable heaven)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으며, “우상들”은 “신들”이라는 말을 만들어 사용하였다고 밝혔다.⁴⁴⁾ 이러한 주장은 흔히 “하나님”이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다고 말하는 것이 신학적 해석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이 용어가 어떻게 시대별로 사용되어 왔는지 그 변천 과정을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하느님”(누가복음예수성교전서) ⇨ “하나님”(예수성교전서) ⇨ “하느님”
(구역) ⇨ “하나님”(개역) ⇨ “하느님”(공동번역) ⇨ “하나님”(새번역)

이렇게 1882년부터 2001년까지 “하느님”과 “하느님” 그리고 “하나님”이 번갈

31:6 (June 1935), 154; 이덕주. “초기 한글성서 번역에 관한 연구”, 그리스도교와 겨레문화연구회 편, 『한글성서와 겨레문화』(서울: 기독교문사, 1985), 446.

42) 문익환, “히브리어에서 한국어로”, 『신학사상』 7 (1974), 683-702.

43) 민영진, 『히브리어에서 우리말로』(서울: 두란노, 1996).

44) Pieters, “Notes on Old Testament Revision”, 79.

아가면서 사용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단지 발음의 차이일 뿐 그 뜻은 “하늘+님”이라는 사실을 피터스의 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점은 최초의 한글 신약인 『예수성교전서』를 펴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로스의 말과 도45) 같은 맥락의 말이다.

번역을 하면서 피터스가 어려움을 겪었던 문제가 히브리어 동사의 수동태와 3인칭 기원형 그리고 가정법의 번역문제이다. 우선 수동태는 우리말에서 잘 사용되지 않는 어법이다. 따라서 수동태가 자주 등장하는 히브리어를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옮기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다. 피터스는 그 예를 들지 않았다. 하지만 위에서 우리는 이사야의 고난 받는 종의 노래를 예로 수동태 문제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피터스 번역 팀의 번역 철학인 “될 수 있는 대로 문자적으로 옮기고자”(as literal ... as possible) 하였다는46) 말을 생각해 보면 왜 그토록 어색한 수동태 문장이 개역 속에 많이 나오는지 알 수 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의게 슬혀버린바 되었으며”(사 53:3 ㄱ)에서 “사람들의게 슬혀버린바 되었으며”(싫어버린바 되었으며)는 “사람들이 싫어하였으며”가 더 자연스러운 번역일 것이다. 또 “마치 사람들의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아님을 맞는자 갖아서”(사 53:3 ㄴ)에서 “사람들이 그를 보지 않으려고 피했다”는 식으로 바꾸어야 더 자연스러운 우리말이 될 것이다. 따라서 수동태 문제는 피터스 번역 팀이 원문의 뜻을 살리고자 애쓴 노력은 높이 평가해야 하나 우리말을 파괴하였다고 하는 점에서는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까닭은 『성경개역』과 그 교정본인 『개역한글판』 및 그 개정본인 『개역개정판』을 줄 곳 읽어온 우리나라 개신교회 교인들의 언어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왔기 때문이다.

또 하나 말해야 할 점은 히브리어에만 있는 동사 3인칭 기원형을 어떻게 번역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한마디로 우리말에는 없는 어법을 새로 만들어 그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특별히 “하게 하오” 체로 이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점이다. 히브리어 동사 3인칭 기원형을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능성에 바탕을 두고 일본 강점기 이후에 나온 『공동』과 『새번역』은 “빛이 생겨라”(창 1:3)와 같은 명령형으로 옮길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로 하여금 ...을 하게 하라”는 뜻의 “하게 하오”라는 이해가 바로 이러한 해석을 할 수 있게 한 주장이라는 점이다.

우리말에 잘 발달되어 있지 않은 가정법의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가령 ...해도”(시 50:12)이나 “가령...하자”(욥 16:4)의 경우 그 뜻은 “예를 들어 ... 한다 해도”라는 뜻이라고 밝힌 것은 훌륭한 지적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우리말을 배

45) Ross, “Corean New Testament”, 209-210.

46) Pieters, “Notes on Old Testament Revision”, 80.

위 번역에 참여한 피터스의 노력을 다시금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논의하지 않았지만 우리말 문체의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다. 예레미야 32:3-5이 그 전형적인 예이다. 이 구절 가운데 “... 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라는 표현을 보면 인용 속에 또 인용이 들어 있어서 매우 어색한 우리말 표현이 되었다. 따옴표가 발달되어 있지 않은 당시의 배경을 감안하더라도 이 번역이 자연스러운 우리말이라고 보기에 어렵다. 오히려 이러한 표현이 전형적인 『성경개역』 투의 어법으로 인식하도록 한 계기가 되었다. 이후에 나온 『공동』이나 『새번역』은 이 점을 잘 인식하고 따옴표를 사용하여 인용문을 처리하여 자연스러운 우리말 문장이 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번역문을 읽어도 이해하기 어렵도록 한 이 어투는 다시 생각해보아야 할 어투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피터스의 글을 통하여 『성경개역』 구약 번역의 특징을 용어와 어법과 문체로 나누어 생각해 보았다. 히브리어와 한국어가 만나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피터스의 글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용어와 어법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많은 점을 공헌하고 있으나 문체에 있어서는 우리가 극복해야 할 문제점을 남기기도 하였다.

<주요어>(Keywords)

알렉산더 피터스, 한글 개역 구약 개정, 신 호칭 문제(하나님, 하느님), 우리말의 수동태, 히브리어 동사의 3인칭 기원형, 히브리어 가정법.

Alexander A. Pieters, Old Testament revision of the Korean Revised Version, God's title in Korean (Hananim, Haneunim), the passive Voice in Korean Language, the third person of the imperative in Biblical Hebrew, the subjunctive mood in Biblical Hebrew.

<참고문헌>(References)

- 『구약』, 『성경전서』, 경성: 대영성서공회, 1911.
- 『성경개역』, 경성: 대영성서공회, 1938.
- 『예수성교전서』, J 로스, 심양: 문광서원, 1887.
- NJPS *JPS Hebrew-English TANAKH. The Traditional Hebrew Text and The New JPS Translation - Second Edition*, Philadelphia: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99.
- 김정현, 『羅 約翰(John Ross) 한국의 첫 선교사』, 대구: 계명대학교출판부, 1982.
- 김중은, “구약성서국역사”, 『신학사상』 22 (1978), 24-66.
- 김중은, “최초의 구약국역 선구자 알렉산더 피터스(A. Pieters, 彼得)”, 『교회와 신학』 13 (1981), 29-42.
- 김중은, “구약 국역사에서 알렉산더 피터스 (Alex. A. Pieters)의 위치와 의의”, 제76차 한국구약학회 학술대회, 2007년 12월 27일, 기독교대한감리회 종교교회.
- 문익환, “히브리어에서 한국어로”, 『신학사상』 7 (1974), 683-702.
- 민영진, 『국역성서연구』, 서울: 성광문화사, 1984.
- 민영진, 『히브리어에서 우리말로』, 서울: 두란노, 1997.
- 이덕주, “초기 한글성서 번역에 관한 연구 - 특히 성서번역자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그리스도교와 겨레문화연구회 편, 『한글성서와 겨레문화』, 서울: 기독교문사, 1985, 409-505.
- 이환진, “알렉산더 피터스의 『시편촬요』 번역 평가”, 김이곤교수정년퇴임기념 논문집 편집위원회 편, 『시편 우리 영혼의 해부학, 김이곤교수정년퇴임 기념논문집』, 서울: 한들출판사, 2006, 413-453.
- Bridgeman, E. C., “Proceedings relating to the Chinese Version of the Bible; Report of the Committee of the American Bible Society on the Word for God; Resolutions passed in London; Progress of the Revision of the Old Testament”, *The Chinese Repository* 20:5 (May 1851), 215-224.
- Cable, E. M., “The Present Version”, *The Korea Mission Field* 34:5 (May 1938), 96-99.
- Cowley, A. E., *Gesenius' Hebrew Grammar*, 2d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10.
- Joüon, P. S. J. and Muraoka, T., *A Grammar of Biblical Hebrew. Part One: Orthography and Phonetics*, subsidia biblica 14.1, Roma: Editrice

Pontificio Istituto Biblico, 1991.

Koehler, L., and Baumgartner, W., *Th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2 Vols., Richardson, M. E. J., ed., trans., Leiden: Brill, 2001.

Pieters, A. A., "Notes on Old Testament Revision", *The Korea Mission Field* 36/5 (May 1940), 78-80.

Reynolds, W. D., "Fifty Years of Bible Translation and Revision", *The Korea Mission Field* 31:6 (1935), 154.

Reynolds, W. D., "Fifty Years of Bible Translation and Revision", *The Korea Mission Field* 31:6 (1935), 154.

Roberts, B. J., "I. The Old Testament: Manuscripts, Text and Versions", 1-26, G. W. Lampe, ed., *The Cambridge History of The Bible. Vo. 2: The West From The Fathers To The Reformation*, Cambridge: Th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9.

Robinson, E., *A Hebrew and English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including the Biblical Chaldee*, 8th ed., Boston: Crocker and Brewster, 1857.

Ross, J., "Corean New Testament", *Chinese Recorder and Missionary Journal* 14 (1883), 491-497.

<Abstract>

**Alexander Pieters' Revising Work for the *Korean Revised Version*
(1938)**

Prof. Hwan-Jin Yi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Alexander A. Pieters' article, "Notes on Old Testament Revision", published in May 1940 in *The Korea Mission Field* (pp. 78-80) is fascinating in that it reveals us how to translate the *Korean Revised Version* of the Bible (1938). In the article he offered us precious information about the translation team members, translation rule and method. Even though he took his project as a revising work of the former Bible, *Korean Old Translation*(1911), his work can be called a new translation because his team worked with the original Hebrew Bible. The *Korean Old Translation* of the Bible is said to be a translation of an English Bible.

According to him, the members of the project are W. R. Reynolds, Yi Won-Mo, and Alexander A. Pieters himself. They tried to translate the Hebrew Bible as literal as possible. When making a textual decision, they followed the opinion of the majority among the translators, as many other Bible translation teams did.

One of the most important contributions to understanding of the term "Hananim"(하나님) for "God" in Korean would be the fact that the word derived from "heaven." Pieters mentioned in his article that it means "honorable heaven" (p. 79). His idea about the term is close to that of J. Ross, the first translator of the Korean Bible. As a matter of fact, nowadays Korean Christians think that "Hananim" literally refers to one God because "Hana" means "one" in Korean and "-nim" is attached to it for expressing honor or respect. The idea, however, does not seem to make sense because any numeral in Korean cannot be adorned by an ending of respect or so.

The difficulties encountered by Pieters' translation team were how to translate the passive voice of Hebrew verbs and the Hebrew verbal forms of the third person into Korean. The two verbal forms are rarely used or never used in

Korean. For the latter case they adopted the formula of “cause to do” (하게 하오), and for the former, at times they created a passive. We get the answer from this statement why the literary style of the *Korean Revised Version* is not so natural to read. Compared to the *Korean Revised Version*, the newer Korean Bibles such as the *Korean Common Translation* (1977) and the *Revised New Korean Standard Version* (2001) are full of more natural expressions because they are the works of Koreans who tried to avoid awkward expressions as much as possible.

In spite of the weakness of the translation of the *Korea Revised Version*, the enormous effort of Pieters’ translation team should be honored and fully appreciated. What is more, his article on the revision of the Hebrew Bible fills the gap of the history of Korean Bible translation. It does clearly reveal us the unknown facet of the process of the translation of the Old Testament of the *Korean Revised Version*. All in all, the *Korean Revised Version* of the Bible should be called as a new translation, rather than a revision.